

보도일시 (인터넷) 2024. 3. 28.(목) 11:00,
(지면) 2024. 3. 29.(금) 조간

배포 2024. 3. 28.(목) 06:00

해양수산 정책개발에 청년들의 목소리 듣는다 ‘2030 자문단’ 활동 시작

-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제1회 전체회의를 3월 29일(금) 14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한다.

2030자문단은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청년세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제1기 단원을 선발하고 올해 1월 23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자문단은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자문단 회의를 주관하는 자문단장은 지난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으로, 회의를 통해 수렴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장관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단 구성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정례회의로, 그간 분과별로 검토한 해양수산 정책 혁신 과제를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시된 안전에 대해 향후 담당부서 협의,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채택된 안전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2030자문단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팀 장	전찬수 (044-200-5215)
	데이터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백정호 (044-200-5218)
	장관실	담당자	청년보좌역	박성민 (044-200-6108)